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09년도 표어 ⊗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 행동지침 ⊗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이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성탄 메시지



Merry Christmas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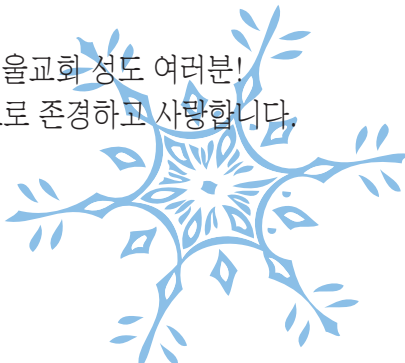


주님의 몸 되신 서울 교회를 섬기며
부족한 종과 함께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오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성탄 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 계절에
목사 이종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성탄절 가족예배

성탄절 저녁 가정 예배

성탄절 저녁 가족 예배 순서

- 예배를 드리는 기도 가족 중 어른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 함께 부르는 찬송 123장(통일 123장) 다함께
- 교독문 다함께
 - 인도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 주셨으니
 - 가 족: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 인도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 가 족: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 인도자: 오늘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나셨다.
 - 가 족: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 인도자: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 가 족: 이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입니다.
 - 인도자: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 가 족: 땅에서는 그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 감사기도 다함께
- 찬 송 111장(통일 111장) 다함께
- 성 경 눅 1:26~38 가족이 다함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 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 성탄절 메시지 성탄의 세가지 기적 가족 중 어른
- 주기도 다함께

성탄의 세 가지 기적

성탄절에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이 오늘 우리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어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중 하나인 인간이 되신다는 말입니까? 그 대답은 철학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기적 자체를 부인하는 현대인들은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받아 드리는 데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막10:45)하셨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도덕이요 상식입니다.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요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신으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만을 탐하고 낮아질 줄 모르며 섬김을 받을 줄만 알았지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성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겸비와 희생의 모습을 체현하지 못한다면 성탄절을 백번 축하해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 님의 자로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적 사랑을 표출할 수 없는 교회며 성도라면 불 꺼진 화로처럼 혐오의 대상이 될 뿐 신되나 희망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는 사회적 섬김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행4:12). 21세기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지만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신 야만인들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 권력층과 심지어 교회에서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초월성을 기초로 하는 사건이므로 이 세대의 유일한 대답이며 희망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기감 없이 믿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사형연도와 같은 처녀탄생 고지를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소서' 하면서 순종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자기 소욕을 채우고 치부를 하고 있는 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인의 뜻을 이루는 충성스런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종운 목사 한장총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성숙한 장로 교회를 위하여

1912년 한국의 장로교 총회가 조직된 이후 2012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장총(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 지난 14일 제 27회기 대표회장과 상임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우리교회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대표회장에는 이종운 목사님이, 상임회장에는 양병희 목사님이 각각 취임하였으며 장로교 26개 교단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장총 향후 활동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신 김삼환 목사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어 일꾼으로 삼으셨다. 일꾼은 오직 주인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꾼 된 자는 선한 마음으로 충성과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하여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가



야한다”고 말씀했다.

이종운 목사님은 취임사에서 한국 장로교회를 회고하며 “1912년 장로교 총회가 조직되어 당시 221명의 총대가 전국에서 모여 첫 해에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의 저력을 보였다. 한국 교회는 100여년의 역사동안 전쟁을 경험했고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세계에서

그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는 많은 점을 개선해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이번 27회기 주제를 ‘성숙한 장로교회’로 정했다. 앞으로 장로교단은 크고 작은 교단이 연합하고 일치하여 민족복음화의 사명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뒤이어 양병희 목사님은 “앞으로 대표회장님을 잘 모시고 건강한 장로교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가입 교단간의 공통점을 극대화하여

강단 교류를 하는 등 북한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예배는 고신 총회장인 윤희구 목사의 인도로 드러졌으며 서옥임 목사, 한기창 목사, 김병규 목사가 특별기도를 하고 합신 총회장인 임석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허숙 권사(편집부)



성탄절을 기다리며- 디아스포라부

사랑하는 북녘의 고향 친구들아!



안녕!!
늘 그리운 사랑하는 고향의 친구들 잘 있었니?
나 헤진이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탄의 탄광마을에서 은희와 영수랑 같이 배고파 울고, 추위에 떨며 함께 슬피 울던 헤진이란 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서울에서 추운 걱정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어제는 엄마가 사준 오리털 동복을 입어보다 순간 고향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너희들의 얼굴이 잠시 떠올라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단다. 나는 추운 겨울이라고 엄마가 좋은 오리털 동복을 사주는데 고향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누가 동복을 사줄까 생각하니 마음이 슬퍼져 나도 모르게 울었단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지 기억할 수 없지만 나는 늘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이 추운 겨울 추운데서 떨고 있을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데도 같다. 아기 예수님은 나와 북녘에 있는 고향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지금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꺼야.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다 알고 계셔. 너희들이 지금 이 추운 날, 떨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신단다.

그러니 부디 죽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남길 바란다. 나도 비록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야. 곧 성탄절을 너희들과 함께 보내길 바란다.

서울에 있는 헤진이 보냄



찬양대 헌신예배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연합찬양대에 의해 연주되는 “메시아”는 헨델의 친구였던 제넨스(C. Jennens) 목사가 성경과 공동기도서를 기초하여 작성한 대본에 헨델(G. F. Handel)이 작곡을 한 오라토리오입니다. 내용면에서는 전체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서곡부터 제19곡까지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과 탄생, <제2부>는 제20곡부터 제42곡까지로 메시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제3부>는 제43곡부터 제53곡까지로 성도의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1741년 8월22일에 작곡이 시작되어 24일 만에 완성된 곡으로 한국 한국이 완성될 때 마다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며 “할렐루야”를 외치곤 하였다고 합니다. 헨델은 곡이 완성된 후 작곡할 때의 감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앞에 온 천국이 펼쳐진 것을 보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도 본 듯하다”

오늘 저녁에는 <제1부>의 예언과 탄생을 다룬 합창곡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같이 기뻐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연주되는 메시아 합창을 통하여 찬양대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께는 영광, 서울교회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찬양위원장 박정선 장로

✠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하늘에는 영광

아기 예수의 평화가 지구



전호진 선교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총장)

금년 한 해 동안 후원과 기도
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15일 화요일) 저희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는 2009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와 성탄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불교가 국교입니다. 그럼에도 호텔이나 관공서는 놀라웁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곳이 많으며 백화점도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곤 합니다. 그러나 트리와 북을 비는 신주 단지가 나란히 있는 곳도 많



지도자들은 성탄절을 공휴일로 해 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부 장관급을 초청하여 연합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석 가 탄 생 일과 왕 생 일 은 공 휴 일 이 어 도 성 탄 절 은 아 직 공 휴 일 이 아 닙 니 다. 그 래 서 이 곳 현 지 교 회 지 도 자 들 은 성 탄 절 을 공 휴 일 로 해 달 라 고 정 부 에 청 원 을 하 고 있 다 고 합 니 다. 이 번 성 탄 절 은 정 부 장 관 급 을 초 청 하 여 연 합 집 회 를 계 획 하고 있 습 니 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나라 역시 상업적 크리스마스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성탄이 없는 나라입니다. 2주간 전에 이 나라에서는 제법 큰 선교집회가 있었습니다. 130명이 모여 2박3일간 선교대회를 가졌는데, 저도 “캄보디아 교회에 의한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며 사랑하는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께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새해에도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은준 · 강혜정 선교사
(카자흐스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만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위임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예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안부 인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놀랍고 복된 이 소식은 지금 이곳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실크로드선상에 있는 도시, 타라즈에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구 공산권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이곳, 그리고 이 도시에 기적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모든 교파와 교회가 연합하여 축하하는 공원이 작은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어도 찬양으로 춤으로 주님의 오심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축하하였습니다.

우리 미르교회와 성도들도 이 도시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맞이할 예정입니다. 아기예수의 평화가 지구촌 모든 열방가

운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마을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조범연 · 김희정 선교사
(인도)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성탄의 기쁨을 인도 신학교에서 보내드립니다.
제가 사역하는 인도 UBS 신학교도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서부터 지금까지 대강절과 성탄을 맞이하는 행사를 하느라고 연일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채플린을 겸하고 있어서 모든 학교 내의 예배와 교회 장식을 관리해야 합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학생들과 성전장식을 하고, 학교의 특별 성탄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와 교수 사택을 다니며 찬송을 부르고 성탄 연극과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것이 저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도에서 조범연, 김희정, 라빈, 라혜, 채린이 보내드립니다.



박진아 선교사
(캄보디아)

지금 고국은 성탄의 기쁨 찬양 소리가 가득하겠지요?
서울 교회에서 성탄을 맞이하며 아름다운 트리를 장식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지인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성탄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곳곳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성탄의 기쁨은 아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국이 누리는 아

름답고 기쁨이 가득한 성탄이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탄생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선교지의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맞이하는 성탄은 두 가지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먼저는 그리운 고국의 교회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탄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이 천년 전 유대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처럼 또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전했던 선교사들처럼 이제는 계속해서 캄보디아에도 그 큰 기쁨

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 역시 감사합니다. 킬링 필드로 고통해온 캄보디아가 이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충만해지는 리빙 필드가 되어 성탄의 기쁨을 다른 나라에도 전하게 되도록 축복하여주시길 소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울교회!
메리 크리스마스! 캄보디아!



땅에는 평화

모든 열방 가운데...

김영호 · 서향정 선교사(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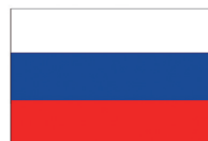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즐거운 성탄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멀리 러시아 노브고로드에서 세계 선교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날마다 애쓰시는 이종운 위임목사님과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곳 러시아는 백야현상의 여름과는 달리 낮에도 어둠으로 가득 찬 혹추 현상이 지속되는데 꼭 영적으로 흑암의 땅처럼 느껴지고 그 백성들은 흑암에 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동료 러시



이 땅에는 거리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불빛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9:2)는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더욱 환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고 2009년 성탄을 맞이한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벨리키 노브고로드에서

김용진 선교사(말라위)

사랑하는 서울교회 교우님들께,

선교사역의 2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사역에 많은 신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고무적인 것은 사역지에 지난 9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교



회의 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고 (말라위 서울교회, Malawi Seoul Church) 또한 주민들을 위한 진료소 건물이 마련되어 지난 10월에 시범 진료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장공사와 의료시설을 갖추면 내년 2월 무렵에는 개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금년도 중반기에 한국으로부터 트랙터와 경운기, 양수기 등 품질 좋은 농기계류가 도입되어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건기철 농사의 수확을 이루게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등 인근 나라의 교정당국에서도 동일한 프로젝트를 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혜국에서 시혜국으로 바뀌어진 한국이 아프

리카를 돕는 일에 저희 사역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저 퍼주는 식의 도움보다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에 기초해서 주는 삶을 통해 아프리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새해에도 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며 이들도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해에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황명 · 손혜신 선교사(이스라엘)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천 년 동안 유대인은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한 세기 이전 이스라엘의 회복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음을 보고 믿은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례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유대인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온 이스라엘이 예수가 왕이신 메시아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쉬지않고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스라엘의 도시마다 거리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심을 축하할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복음에 빛진 우리 이방인의 몫입니다.



베들레헴의 낚새나는 마굿간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의 신비를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손신일 · 민매라 선교사(체코)

프라하에서 2009년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11월23일에 파송을 받고 12월에 프라하에 온 지 만1년이 지났습니다. 체코 땅에서 일본인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일본어예배를 드리고, 12월13일에 일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체코 땅에서 일본인 사회는 결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여기서의 일본인 사역을 통한 다양한 교제와 열매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집니다. 저희 가족은 프라하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체코 사람들에게 더욱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벽은 아직도 높습니다만, 체코 말이 가지는 풍요로운 마음



도 어렵잖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체코는 기독교 문화에 속한 나라이며 역사가 깃든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독교 신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 사역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

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프라하는 성탄절이 가까워 지면서 영하의 날씨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장식에 덮여졌고 크리스마스 마켓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시기에 신기하게도 잉어를 파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체코에는 성탄절에 가정마다 잉어요리를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성탄절에는 한 번 맛보았으면 합니다. Vesel? V?noce (Merry Christmas) 서울교회 모든 가정에 성탄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흥위 선교사(동아시아)

2009년, 북반구에서 밤이 제일 긴 이곳은 점점 어두움이 일찍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엔 오후 4시가 되면 어둑어둑해집니다. 밤이 제일 긴 날 동지, 동지가 지나면 점점 날이 길어진다는 확신 때문에, 동지는 기다려지고 긴 밤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희망에 생명이 움트는 봄날을 바라봅니다. 북한을 바라보며 사역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소망과 확신에 가득 찹니다. 점점 어두워지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낮이 길어지는 날들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배 띄웠던 두만강은 개구쟁이들이 미역 감고 뛰노는 개울처럼 작아져서, 강 건너가 육안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하는 주님의 음성을 음미해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몰려오는 무리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여 년 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이곳 자매들이 북한에 두툼한 목도리를 보내던 일이 생각납니다.

공공 얼어붙는 추위보다 우리 동포들의 마음이 더 추워보여서 "그곳에도 성탄이 임하는 걸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반드시 임하신다고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도 해마다 성탄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씨앗이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사랑의 눈꽃이 되어 온 누리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겨울이 긴 동네에서 주안에서 함께 하는 자매로부터



서광중 · 이성일 선교사 (인도네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지고 새해의 소망이 세계의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새해에는

섬기시는 서울교회와 하시는 일 모두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역지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현재는 동부 자바의 '팔랑'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동남 아시아 성도 신학원(聖道神學院)'의 교수 사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저희가 도왔던 교회로부터 성탄절

행사를 다시 도우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성탄절행사를 돕게 되어 자카르타를 다녀와야 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쁜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도 저희의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을 · 조에스터(동아시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찬양으로 송축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 된 서울 교회 파송을 통해서 선교지에 정착한지도 일 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예배와 찬양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날씨도 일 년 동안 태양을 만나기 어려운 컴컴하고 흐린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한 달도 태양을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서울교회의 믿음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기쁘고 감격된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하늘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선교지에서도 널리 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로 파수군

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때론 기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임마누엘로 인도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빛이 이 땅에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서울교회와 위임목사님 기도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우상식 · 김정옥 선교사(인도)

라마스카라!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존경하는 이종운 위임목사님과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여러분위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구원의 기쁜 성탄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서울교회가 진리와 복음 안에서 든

든히 서가며 부흥 성장함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선교사들과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와 역사해 주심으로 믿음과 소망가운데 서서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개척과 공부방(영어, 수학, 학과목)

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유치원도 개원할 예정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서울교회와 인도 그리고 온 세계위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재훈 · 박재연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열대성 소나기와 이글거리는 태양으로 더욱 뜨거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인사드립니다. 하얀 눈이 솟아볼처럼 뒤덮은 서울교회에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가가 울려퍼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지난 1년간의 정치적 소요가 끊이지 않고 수개월간 정부의 장관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 군인 경찰들 심지어 환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조차도 조그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고향을 찌내는 모습이 만연합니다. 네살 다섯살이 채 안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시장 좌판을 지나면서 슬쩍 망고 하나를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훔치는 솜씨



가 이미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아이를 보고 화가 나기보다는 얼마나 배가 고파오면 하는 연민과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손을 벌리는 때로는 아이의 손위에 하나님이 눈물이라도 흘리는 듯 소나기가 내립니다.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와 흉년을 배경으로 흉길동 임격정 장길산 등의 이야기 만들어진 우리 나라 오래전 상황이 지금 이곳에서 현실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평범하고 양순한 지방의 농민들이 폐강도가 되어 지나가는 버스를 털었다는 소식도 드물지 않게 들려오면서 해가 지면 지방으로 여행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평화의 기쁜 소식이 2천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한 구석의 마구간에서 퍼져 나간 것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타나의 한 구석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 땅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또한 이 땅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 곧 Andriamanitra는 크고 영원한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인데 이 복음의 향기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가장 어두운 곳을 빛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교회는 이 기쁜 성탄절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예배와 행사를 준비했다.

· 성탄감사예배: 1부 - 오전 9시 본당
2부 - 오전 11시 - 본당

1. 찬양대 헌신예배/성탄 감사 찬양 - 오늘 찬양예배 시간

오늘 찬양예배는 성탄절 감사 찬양예배로 드린다. 서울교회 연합찬양대(지휘: 임범장 집사)가 그동안 준비한 헨델의 메시아 1부 '예언과 탄생'을 다룬 합창곡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주님 나심을 찬양으로 선포한다.

2. 성탄전야 행사 - 12월24일(목) 저녁7시 본당

성탄절 전날인 12월24일(목) 저녁7시 본당에서 성탄전야 행사를 갖으며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과 사랑부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율동과 찬양으로 성탄을 축하한다.

또한 이 시간에는 산타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주님이 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실 예정이다.

3. 성탄절 - 12월25일(금)

- 새벽송: 성탄절 새벽, 신청가정으로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본당에서

성탄절 새벽은 주님이 나신 첫 성탄 때의 목자들과 같이 우리교회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이 새벽송을 신청하신 가정에 방문하여 찬양으로 주님 나신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새벽 5시에는 성탄절 새벽예배를 드린다.

성탄절 아침,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 주님이 나신 성탄 감사예배를 오전 9시와 11시 두 번 드리며 성탄감사헌금도 드린다. 그리고 성탄절 저녁에는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절 저녁 가정예배를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한편 구제위원회에서는 우리교회 성도들 중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교구지도 목사가 일일이 심방하여 형편을 살피고 성탄 절기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으며 장애인교육시설인 주몽재활원과 나사로의 집에도 담당교역자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 임명

주일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교회는 2010년 섬김위원 임명 중 마지막 순서인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한다. 오늘 임명받는 이들의 명단은 주보에 간지로 넣어졌으며 주일예배 시간에 교회와 하나님 앞

에서 임명을 받게 된다. 오늘 임명받는 교사들은 한 해 동안 주님이 맡기신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기도한다.

교사 총회

3부예배후 -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오늘 임명받은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교사 총회가 3부예배 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2010년 한 해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은 이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교사 총회에 임하도록 한다.

2010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 확정

영어예배부 겨울수련회를 시작으로(1월22일(금)-23일(토) 아가페타운)

2010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는 총회 주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에 따라 성경학교 · 수련회 계획을 짚으며 서울교회와 가평 아가페타운에서 부서별 계획에 의거 열린다.

이번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를 통해 서울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큰 은혜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도록 기도한다. 부서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2(월)~23(화)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2.22(월)~23(화)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황 광 목사
유년부	2.22(월)~23(화)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김안성 목사
초등부	2.22(월)~23(화)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서명철 목사
중등부	1.25(월)~1.27(수)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박종민 목사 / 황 광 목사
고등부	1.28(목)~1.30(토)	아가페타운	예배-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이종운 목사 / 노현상 목사 / 박광일 전도사
사랑부	2.21(주일)	서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문정훈 목사
대학부	2.4(목)~6(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박노철 목사 / 유문건 목사
청년1부	2.28(주일)~3.1(월)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기쁨을 열망하라	이종운 목사 / 박노철 목사 / 장석남 목사
청년2부	2.26(금)~2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문정훈 목사
디아스포라	1.29(금)~30(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노현상 목사 / 박광일 전도사
에바다	2.2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종운 목사 /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6(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상은 목사 / 황 광 목사
영어예배부	1.22(금)~23(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조슈아 목사

2009년 12월 학습 ·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2월16일 수요일 12부 예배 시 올해 마지막 학습 ·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매년 짝수 달(격월) 3째 주 수요일 12부예배시에 학습 ·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또한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 ·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9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개종/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세례자>- 12명

김나경 김미애2 김선희4 김정숙1 마종량 박동수2 박영관 심진영 윤정일 이동훈1 이미경8 홍승주

<개종자>-3명

유미숙2 장대봉 정순임

<입교자>-10명

고휘찬 김성은2 김준식 류형석 문가림 이상휴 이은수 이한나1 장지윤1 한가형

<학습자>-11명

곽규원 김문범 김지현10 류기승 문남이 방승후 서담은 송인택 유정이 이도성이 용기

<유아세례자>-7명

김나윤1 김서연 설재울 심주하 심현준 이재산 한서준 총 43명

2009년 12월 성경통독자 시상

<필사>(7교구) 김희진1 권사
 <14독-1년>(5교구)이윤영 권사
 <10독-1년>(1교구)이정순 권사
 <7독-1년>(2교구)윤만현 권사
 <4독-1년>(8교구)김대호 장로 (9교구) 김은애 권사 (10교구)이점숙 권사
 <3독>(10교구)최무순 권사 (11교구)이민화 권사 (16교구)장양일 집사
 <2독>(1교구)백명자 집사 홍순복 사모 (5교구)최학인 장로 (6교구)유을상 집사 (11교구)신정순 권사 (15교구)김혜란 집사 (16교구)하영수 장로
 <1독>(초등부)김성환 학생 (1교구)곽말순 권사 양준경 집사 (2교구)이응선 장로 (4교구)유명석 권사 정금선 성도 (5교구)유인재 성도 최광형 집사 (6교구)윤용식 집사 (8교구)김영정 권사 (9교구)박이선 권사 (10교구)이혜선 집사 홍성주 장로 (12교구)나미경 집사 최유현 성도 (13교구)김수정11 집사 김희순1 집사 윤태욱 집사 주화인 권사 (15교구)양정실 집사 (16교구)이상호2 집사

교회 헌금의 68.9% 밖으로 지출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교회는 설립 초부터 교회예산의 60%이상을 밖으로 내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해왔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심정으로 구제비, 선교비, 농어촌교회 돕기 등에 올해에는 잠정집계지만 헌금 총액의 68.9%가 집행된 것으로 당회에 보고되었

다. 안으로는 절제와 절약 심지어는 희생을 하는 내핍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서울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한국교회 뿐 아니라 세계교회에 모범을 보인 모델교회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을 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2010년도 순결서약식

1월 3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2010년도 순결서약식이 열린다. 순결서약식은 우리교회가 13세 이상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 11:44)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며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매년 첫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하고 있다.



일(주)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시 후견인의 이름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이종운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일에 거행한 이래 15

년째 계속하여 거행하고 있다. 순결서약을 한 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 오리엔테이션(예배 및 교육): 12월 31일(목) 오후 8시 101호
- 학생과 부모 기도회: 12월 31일(목) 오후 9:30 / 101호

이에 따라 교회는 아직 순결서약식을 하지 않은 만 13세 이상 미혼의 남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서는 각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와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12월27

2010년 농어촌100교회 운동 · Vision 2020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운동 - 후원자 접수

2010년도 농어촌 100교회 운동과 Vision 2020운동 후원자를 접수하고 있다.

농어촌100교회 운동은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들을 후원하여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운동으로 한 구좌에 10만원씩 하고 있다.(1/2구좌도 가능하다.) 또한 Vision 2020운동은 민족의 75%를 2020년까지 복음화 하고자 시작된 운동으로 군에 입대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사랑의 운차 운동(후한기 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찾아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운동)과 진중세례식 등을 실시하고 있다. Vision 2020운동 후원금은 장병 1인 세례경비(5,000원 2구

좌 10,000원)을 후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 운동'도 성도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1구좌를 십만원으로 하고 형편에 따라 1/2구좌도 가능하며 어린이/청소년은 1구좌를 오천원으로 하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선교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운동은 첫 헌금을 2010년 1월부터 드린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고향과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고 선교사들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베들레헴 찬양대 지휘자 청빙

우리교회는 그동안 베들레헴 지휘자로 수고하던 김정훈 집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여 그 후임으로 김낙형 선생을 청빙하였다. 김낙형 선생(1953년생)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단국대학교 음악대학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Italia Perugia G. Frescobaldi Academia 합창지휘과를 졸업하고 USA Choral Ridge Presbyterian Church 교회음악 지휘자과정, USA Westminster Choir College에서 최고급지휘자과정 수료, America Conservatory of Music DMA(지휘박사) 졸업하였다. 약수교회와 강북제일교회, 영락교회에서 지휘자로 봉사하였다.

성실한 주님의 일꾼을 찾습니다

- 모집대상: 사무국 직원 약간 명
- 자격: ① 세례교인 ②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사무자동화자격증)소지자로 컴퓨터 업무에 능숙하신 분 ③ 컴퓨터 그래픽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방송 송출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분
- 제출서류: 이력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제출처: 교회 사무국 · 문의: 02) 558-1106 사무국
- 제출기한: 2010년 1월 11일(월) 오후 6시
- ※ 접수된 서류는 인비(人秘)로 처리되어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2일(화) 한장총 신학교 인준위원회를 소집한다. 26일(토) 웨스트민스터 신대원 한국 동문회를 소집한다.
- 수상: 운영남권사(10교구) 12월 17일(목) 강동문화회 주최, 토요일 저널신문사 후원 14회 선상문학상 수상
- 특남: 박주현, 김윤영 성도 (3교구)
- 특녀: 이주현 성도, 이주영 성도 특녀(14교구)
- 주간식당 봉사: 당회원(12.20) 빌립선교회(12.27)
- 금주의 식사: 유승순 장로 소년사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이 위치한 청평 주민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3. 새해 교사로 임명받은 이들에게 말씀 중만 · 은혜 중만토록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